

# “비만지수 높을수록 남성 성기능 저하된다”

### 대한비뇨기과학회, 남성 1151명 조사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주명수)가 올 1월~10월 전국 11개 대학병원을 찾은 40세 이상 성인남성 중 배뇨곤란을 보인 환자(IPSS 8점 이상) 115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수치가 높을수록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고, 남성 성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MI가 높을수록 전립선 크기가 커지고 배뇨 불편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비만이 전립선 및 남성 성기능, 배뇨 건강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비만지수 높을수록 남성 성기능은 저하=비만과 남성 호르몬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BMI가 23미만인 정상 및 저체중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 분비 수치가 5.7ng/mL이었으나 ▲BMI가 30이상인 중등도 비만 남성은 남성호르몬 수치가 3.8ng/mL로 호르몬 분비가 적었다.

남성 성기능 수치도 측정됐는데 ▲BMI가 23미만인 남성의 경우, 남성성기능 수치는 11.5점으로 확인됐고 ▲BMI가 30이상 남성의 경우, 남성성기능 수치는 9.4점이었다. 남성 성기능 8~11점은 중등도의 발기 부전에 해당하는 수치로 점수가 낮을수록 발기 부전은 심해진다. 위의 두 결과를 통해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남성 호르몬 지수와 남성 성기능 지수 모두 저하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40대 이상 성인 남성, 체중 증가로 전립선은 동등해지고 배뇨불편 호소=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전립선이 커지는 것은 이어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다시 한번 밝혀졌다.

일반적인 성인남성의 경우 전립선의 통상적인 크기는 20cc이다. 그런데 배뇨곤란을 겪고 있는 40대 이상 남성들 중 BMI가 23 미만인 정상 및 저체중 남성의 평균 전립선 크기는 25.9cc였으며 30을 초과한 중등도비만 남성의 경우, 전립선 크기는 33.9cc였다.

한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배뇨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배뇨불편은 전립선 크기가 커지면서 요도와 방광을 압박해 생기는 것으로, 배뇨불편 증상으로는 빈뇨·야뇨 등의 저장 증상, 약뇨·분산뇨 등의 배뇨 증상, 잔뇨감 등의 배뇨 후 증상 등 크게 3가지 증상이 있다.

**?** BMI(Body Mass Index) 체질량지수로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BMI가 18.5 이하면 저체중, 18.5~23은 정상, 23~25는 과체중, 25~30은 비만, 30이상은 고도비만이다.

## BMI수치 높아질수록 전립선 비대증 우려 커져 배뇨기능 저하 악순환



서주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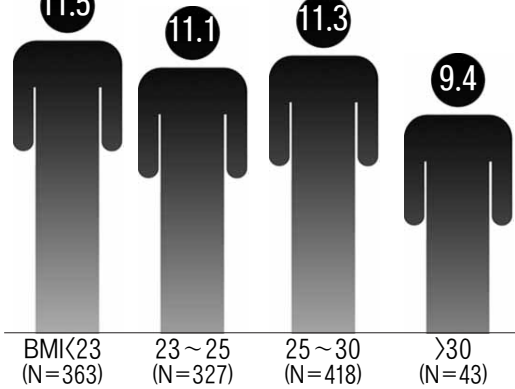
BMI가 23 미만인 남성의 평균 배뇨불편 지수는 13.2점이었고, 30을 초과한 중등도비만 남성의 경우 17.4점으로 중간증상 정도에서 배뇨불편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S)에 따르면, 0~7점 사이는 가벼운 증상, 8~19점은 중간증상, 20~35점은 중증증상이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체중과 전립선크기, 배뇨불편, 남성호르몬, 남성성기능이 모두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질환들은 개별적으로 치료하는 것 보다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 비뇨기과에 내원해 정확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한비뇨기과학회 홍보이사 서주태(관동의대 제일병원 비뇨기과)교수는 “지난 1년간의 배뇨곤란을 느끼고 있는 40대 이상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조사를 통해 비만이 끼치는 영향의 범위를 추적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만할수록 전립선이 커지고 남성 호르몬과 남성성기능이 약해지며 배뇨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40대 남성에게서 비만율이 높고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및 남성 성기능 저하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꾸준한 자기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으로 예방 및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체질량 지수와 남성 성기능·호르몬의 관계

□ 남성 성기능(IIEF) <단위: 점>



□ 남성 호르몬(Testosterone) <단위:ng/ml>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국제 전립선 증상 자가진단표(IPSS)를 근거로 작성된 자가진단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가늘고 자주 끊겨서 나오는 경우 ▲소변을 봐도 소변이 방광에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소변을 볼 때 힘을 줘야 하거나 한참 기다려야 나오는 경우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빈도수가 높을 수록 자신의 전립선 건강을 의심 해보아야 한다. 전립선비대증 자가진단표는 블루애플케어 홈페이지(<http://www.blueappl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움말=대한비뇨기과학회>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세계로병원이 주최한 슬관절 심포지엄 및 라이브 서저리에는 전국 유명 정형외과 대학교수, 무릎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광주 세계로병원, 슬관절 심포지엄

전국 유명 정형외과 대학교수·무릎 전문가 등 150여명 참석 성료

광주 세계로병원이 최근 세미나실과 수술실에서 슬관절 심포지엄 및 라이브 서저리를 병행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세계로병원·대한슬관절학회·호남슬관절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심포지엄 및 라이브 서저리에는 전국 유명 정형외과 대학교수, 무릎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정재훈 세계로 병원장은 “세계로 병원의 개원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심포지엄과 Live Surgery를 준비했다”며 “인공관절 수술을 포함해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초기 관절염 치료를 위한 연골 재생 및 절골술 등 슬관절의 대표적인 수술을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5개 분야에서 15여 개의 연재가 라이브 서저리와 병행 발표되고, 연례별 토론과 종합토의 등으로 슬관절 분야의 최신 치료경향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1부에서는 서울의대 김태균 교수, 세계로병원 정재훈 원장, 전남의대 송은규 교수, 이화대의대 김영호 교수, 울산의대 조우신 교수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2부는 전남의대 선중근 교수, 경북의대 경희수 교수, 가천의대 이범구 교수, 강북삼성병원 안진환 교수 등의 순으로 발표와 시연이 있었다. 3부는 세계로병원 박상진 원장의 시연으로 진행됐으며, 4부는 원광대의대 전철홍 교수, 조선의대 김동휘 교수, 현대병원 정영복 원장 등으로 이어졌다. 5부에서는 성균관의대 하철원 교수, 서울의대 장중범 교수, 세계로병원 박상진 원장, 부민병원 서승익 원장 순으로 발표와 시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연수프로그램으로서, 이례적으로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전문 병원에서 주최해 주목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대병원·중창시 제2국민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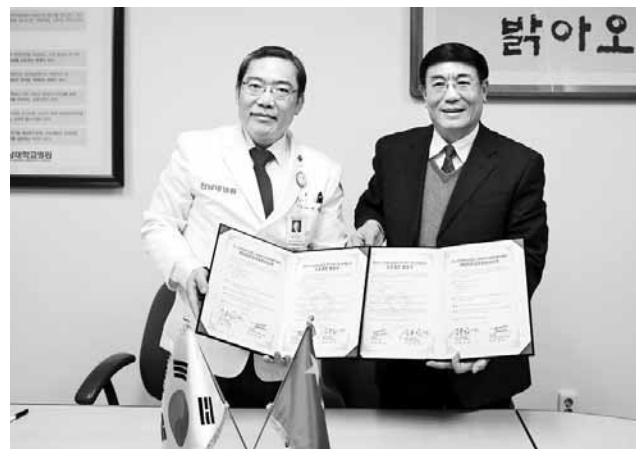
### 의료협력 MOU 체결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립·사진 왼쪽)이 최근 중국 산시(山西)성의 대형종합병원인 장치(長治)시 제2국민병원(병원장 양장비)과 의료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윤택립 병원장과 시사오전 장치시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병원 6동 회의실에서 열렸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공동 학술연구 ▲의료인 및 직원의 상호교류 ▲정보와 자료의 교환 ▲환자 송출 등의 활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윤택립 병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장치시 제2국민병원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의료연구와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양 병원 모두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글로벌 병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병원·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

### 의료서비스 협력 협정식

조선대병원(병원장 문경래)과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MUST)이 최근 조선대병원 회의실에서 의료서비스 협력과 관련 협정식을 가졌다.

조선대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헬스센터를 지원하고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 요청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엔 방문한 몽골 과학기술대학 부총장, 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일행은 협약전 병원내 종합검진센터를 둘러 보았다. 문 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몽골 국립과학기술대 1500여명 교직원의 건강을 조선대병원이 책임진다는 데 커다란 의미를 두고 있다”고 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몽골 제1병원, 몽골 송도병원, 몽골 의과대학과 MOU를 체결해 국내 선진의료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 지원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1636 결과 믿음소망 말하세요

NAVER 대리점모집센터

2014 미스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글전화번호 1636

모든 상호·이름이 전화번호가 됩니다

기본의 숫자번호 바꿀필요 없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

대리점, 에이전시(영업사원) 모집합니다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매기살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초대박매출

262-0049/010-3803-2612